



● 개혁신학 양서연재 2

성령의 인치심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수인 Willem van't Spijker (1926-) 박사의 *De verzege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 라는 단행본의 pp. 51-58을 번역한 것이다.

판 스파이커교수는 1971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서의 직분론' (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타레흐트 (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 (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 (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서 연구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학자이다. 현재 활동 중인 그의 제자들로는 아플도른의 Herman Selderhuis 교수, 장신대의 최윤배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clesiastical Offi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E. J. Brill)>, <Calvin: Die Kirche in ihr Geschichte (V & R)>, <Luther en Calvin>, <Luther: Belofte en ervaring>, <Reformatie en geschiedenis>, <Triptiek van de geschiedenis>, <Geest, woord en kerk>, <Gemeenschap met Christus> 등이 있다. 저자의 동의를 받아 본서를 계속해서 번역 연재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들을 함께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속한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약속한다. 그는 말씀에 스스로를 연결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우리를 스스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성령이 인사의 빛을 재민을 위해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방을 위한 주역과 해방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II. 마틴 부서(Martin Bucer)와 성령의 인치심

개혁주의 전통의 종교개혁은 성령과 그의 사역에 관하여 루터관과는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루터는 열광주의자들(the Spiritualists: (역주) 하나님께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교개혁의 한 분파)을 몹시 싫어하였다. 루터가 겪었던 몇몇 대표적 열광주의자들과의 경험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실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루터는 성령과 그의 사역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남부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경우 이 문제는 달랐다. 그들은 신학의 다



양한 측면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과 신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들은 '칭의' 만을 논한 것이 아니라 '성화'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마틴 부서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우리는 부서의 견해를 앞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가 실제로 이 본문을 설명하는 〈에베소서 주석〉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1527년에 발행된 에베소서 에 관한 그의 소책자이다. 여기서 부서는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 지어 논의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실제로 놀랄만한 독특함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체험의 전부를 제공하는 일반적이며 종교적인 영이 아니다. 그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redemption), 즉 화해(reconciliation)를 실현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선물하심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 분이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베푸실 때 이것은 시작되는데 이 영은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이는 투쟁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는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능력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은 확실한 보장, 인증으로,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유에 대한 기쁨 부으심과 보증금으로 불린다.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택함 받은 자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변화될 때, 그들은 먼저 이 영을 받게 된다.”

부서가 성령을 단순히 우리를 영원한 복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자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에게 구속은 믿는 자들이 여기에서 시작하여 곧 마지막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 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특별히 우리가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영생에 대하여 명상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이를 희망과 확신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확증시킨다.

믿음의 삶은 성령이 먼저 충동을 제공하는 삶이 아니다. 또한 이는 첨가의 방식으로 성령이 언급되는 삶도 아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구속의 모든 측면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 가운데 거하는 삶과 확실한 미래를 지향하는 영적 삶을 뜻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불멸'에 관하여 명상하도록 만드는 데, 이는 그가 우리의 마음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이 크리스찬을 나태하거나 냉담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웃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며 삶의 성화를 강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부서에게 구속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삶이 된다. 또한 이는 미래 지향적인 삶이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것에 관해 명상하도록 이끈다. 이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발견하는 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만든다.

부서는 성령을 '선택함을 받은 자의 보증'이라고 부른다. 에베소서 1:13,14에 대한 주석에서 부서의 본문 해석에 있어서 독특한 몇 가지 견해를 발견한다. 여기에서 부서의 주석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복음에 그들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확증시킨 동일한 성령이 '보증'(sphragis)인데 이를 통해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하

나님의 자녀로 인식되도록 만든다. 성령은 그들의 영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인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심어준다(롬 8장).”

성령은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열매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심겨졌다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한 그릇으로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성령은 또한 우리의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불린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복된 삶을 약속하는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된다는 것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과 함께 선물로 부여받았다. 성령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유업과 구속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성령의 소유로 인해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옛 언약의 시대에 이미 경건한 자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새 언약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성령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사역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사람들은 이 사역에 의해 구원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지만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 성령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수 없으며 육신의 욕심을 따른다. 이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며 그의 의지에 복속된다. “이에 반해 성도들은 성령의 주장함을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와 사탄과 항상 투쟁한다. 비록 이들이 종종 넘어지지만, 죄에 대해 거리를 두고 의심할 수 없는 희망에 의해 고무되며 죄와 죽음의 육신에서 단번에 해방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설교를 통해 약속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서가 믿음의 의미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 흔히 인정되는 것처럼 외적인 것에 의해서만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비롯된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양육되고 증대된다. 아무도 성경이 멸시당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경건함에 있어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한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속한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는 말씀에 스스로를 연결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우리를 스스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이를 통해 성령이 인치심의 빛을 자신만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부서는 자신의 에베소서의 제일 첫 주석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누리게 되는 도구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이 가시화되는 특징으로 묘사한다. 구원의 확신과 윤리적 성격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부서에 의해 요약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부서에게 구원의 이 두 가지 요소, 즉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가시성(visibility)이 어떻게 일치될 이루는가를 살펴보았다. 그에게 성령의 인치심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스스로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개혁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로마교는 단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상의 경우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거의 획득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가 건짐을 받게 될 것을 안다고 할 때 이는 특별 계시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은 오로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만을 내세웠는데 그 이유는 이신칭의를 통해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구원은 분별되어진다.

그러나 이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에 드러난 것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갱신한다. 삶의 이러한 새로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루터는 이러한 진리가 불경건한 자들의 칭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부서는 이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빛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성령의 사역이 지닌 찬란한 빛을 보여준다. 그래서 부서는 성령의 인치심에 놓여있는 구원의 두 가지 요소를 내세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인치시고 그들이 자기 소유임을 보여주신다. 이제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서가 1550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 행한 강의에 나타난 성령의 인치심을 주장하는 본문에 대한 그의 번역이다. 그는 성령의 인치심을 복음과 연결시킨다. 복음에 의해 우리는 믿음을 지니게 된다. 영



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신이 믿은 후에 당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더불어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마찬가지로 인치심은 우리에게 중재된다. 복음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공하시며 우리에게 그를 알려 주신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그는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만든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믿음, 즉 조작된 믿음과 구별되는 참된 믿음에 의해 일어난다. 여기에서 그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확신이며 참으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그 선하심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활발하게 만들므로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의 표현이 더욱 명확한 방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부서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는 아래에 주어진 것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다: 성경, 성령, 복음, 믿음, 살리심에 의한 갱신과 새로운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치심’에 의해 하나로 묶여진다. “우리는 신적 능력에 의해 중생을 받고 하늘의 빛에 의해 차고 넘치게 되므로 우리의 성화와 내적 변화는 성령에 위탁되었다.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격의 구분에 관하여 성경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지닌 통일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관한 이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부서의 의도이다.

왜 성령이 약속의 영이라고 불리워지는가? “왜냐하면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들이 주어지지 않지만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믿음과 중생의 은혜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거룩함과 영생을 향한 인치심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부어지고 주어졌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들의 육신보다 강하시다. 그는 육신의 열망과 정력을 제거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정욕을 죽이고 억제하신다. 그러나 아직 그가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시작된 구속의 인과 보증으로 불린다. 이는 아직 구입대금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고도 아직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일부만 지불하고 그 구입을 확증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에 비유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둬나게 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되 우리를 여기에 육체에 머무르게 하실 정도로 진실로 그렇게 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를 믿고 사랑하게 만드는 이 새로움의 인증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완전함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 성령에 의해 지금 우리는 이미 불경건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로부터 분별된 사실이 드러난다. 성령은 우리가 죽기까지 투쟁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러한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나니...”라고 증거한다. 성령은 보증이시다. 마치 보증금이 물건구매에 신뢰심을 부여하고 이를 확증하듯이 성령은 우리 믿음에 영생을 봉합하시며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킨다. 부서에 게 인치심, 기름 부으심, 보증에 대한 이 비유는 참된 것으로 지속된다. 이 모든 개념들은 한번 오시지만 지금 이미 양쪽을 향해 사역하시는 성령의 완전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확신을 지니게 되며 변화된다.

이 점에 있어서 성령에 관한 부서의 가르침이 지닌 독특함이 잘 드러난다. 루터는 두 가지 종류의 인치심을 주장했는데 이는 진리로서 서로를 수용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치신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친다. 부서는 성령이라는 차원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을 이해하는데 이 삶은 새로운 삶의 일부를 가능하게 만들지만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기다리는 완전함을 부여하는 보증이 제공된다. 인치심에 의심할 여지없는 확실함이 숨겨져 있다. 동시에 새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성령 사역의 표시에 해당하는 새로운 순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로서 경험한다. 부서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칼빈의 믿음 개념에 독특한 특징을 부여하는 정의를 생각나게 한다.

-다음 호에는 '존 칼빈' 편이 계속될 예정임-